

‘딸바보’ 시대의 여성혐오  
— 아버지 상(father figure)의 변모를 통해 살펴 본  
2000년대 한국의 남성성

허윤\*

1. “아빠가 돌아왔다.”
2. 한국형 아버지 상의 계보
3. ‘아빠 예능’의 리얼리티와 ‘딸바보’라는 판타지
  - 3-1. 부계 혈통의 강화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 3-2. ‘딸바보’를 통한 젠더 규범의 재생산
4. 여성혐오의 다른 얼굴인 ‘딸바보’
5. ‘보호하는 아버지’라는 헤게모니

**국문요약**

본고는 2010년대 한국 대중문화 장에서 등장한 ‘아빠 예능’을 통해 아버지 상(father figure)의 변모를 탐색하고자 한다. 2010년대 한국 대중문화 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들의 자리가 확대된 것이다. MBC의 〈아빠 어디가〉(2013~2015)를 필두로,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2013~현재), 〈아빠를 부탁해〉(SBS, 2015) 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조망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IMF 이후 남성성의 위기와 더불어 활발해진 아버지 상의 변모를 읽어내는 데 주요한 키워드이다.

‘아빠 예능’은 더 이상 가부장적 남성성이 불가능해진 시대에, 남성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논의되어야 한다. ‘딸을

---

\*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딸바보'는 '아빠 예능'을 통해 매력적인 남성성으로 호명되어 왔다. 그러나 '딸바보'의 이면에서 가부장 중심의 부계 가족을 강화하고 딸을 성별화하는 젠더 규범이 재생산된다.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것이 권장되는 사회가 되었지만, 주 양육자는 어머니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자주 등장시킴으로써 1970년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과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아버지의 가정 내 권위를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딸을 미성숙한 주체로 범주화하는 것도 '딸바보'이다. 청년 세대의 경제적 독립이 불투명해지면서, 가부장의 경제력이 지배적인 질서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아버지는 딸에게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딸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보호하는 아버지'는 '소유하는 아버지'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딸바보'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지배적 허구로 자리매김한다. 여성을 교환하고 소유하는 구조의 알리바이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딸바보'가 유행하는 시대에 여성혐오 역시 심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할 수 있다.

(주제어: '딸바보', 헤게모니적 남성성, 여성혐오, 〈슈퍼맨이 돌아왔다〉)

## 1. “아빠가 돌아왔다”

2010년대 한국 대중문화 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들의 자리가 확대된 것이다.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을 조명하는 기획들이 증가했고, 유명인들이 자신의 자녀와 함께 스튜디오 방송이나 리얼리티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관찰 카메라에 담은 리얼리티쇼는 '육아 예능'이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공중파 채널에서 방영한 프로그램만 해도 MBC의 〈아빠 어디가〉(2013~2015),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2013~현재), SBS의 〈오 마이 베이비〉(2014~2016) 등이 있으며, 이중 〈오 마이 베이비〉를 제외하면 프로그램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아빠 예능’이다. 육아 예능의 인기가 한풀 꺾였지만, ‘아빠 예능’은 건재하다. 가장 노릇을 하느라 자식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가 자식과의 화해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표방하는 ‘아빠 예능’은 케이블과 종편채널에서 계속된다. “아빠가 된 아재들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관찰 리얼리티 쇼”를 표방한 종합편성채널 채널 A의 〈아빠본색〉(2016~현재)이나 TVN의 〈아버지와 나〉(2016)는 ‘육아 예능’이 ‘아빠 예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주목하는 예능이 증가하는 것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권장하는 사회적, 정책적 분위기와 맞물린다.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3년 전보다 2.7배 늘어난 4,872명에 달한다.<sup>1)</sup>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1년 1,402명, 2013년 2,293명, 2015년 4,872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2.4%에서 2013년 3.3%, 2014년 4.5%, 2015년 5.6% 등으로 상승추세를 보인다.<sup>2)</sup> 남성 육아의 증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저출산 지원책 등이 결합된 결과이다.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의 경력 단절과 양육 부담 때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가 남성의 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요

1) 여성가족부,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6. 여성가족부는 남성육아휴직의 증가, 가족친화적 기업의 확대 등을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 결과 얻어진 효과로 분석한다.

2) 여성가족부,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 측정』, 2015. 94.6%의 기업이 남성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반수인 58.4%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남성성 규범의 변화를 요청한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철저한 분리를 바탕으로 한 한국 사회의 젠더 규범은 남성이 가사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남성성의 거세를 의미한다. 이는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이라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기준을 둔 반응이다. 그러나 대량 해고와 고용 유연화는 남성 주체가 더 이상 생계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시화하였다. 남성성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R.W.코넬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포함과 배제의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젠더 정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남성성은 정치경제적, 인구학적 변동에 따라 역사적, 사회적으로 교섭되는 구성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규정되고 다시 협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언제나 경합의 여지가 있고, 젠더 실천은 다르게 배치될 수 있다.<sup>3)</sup> 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빠 예능’의 등장이다.

본고는 2000년대 대중매체에서 재현되는 아버지 상을 분석함으로써 IMF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한국의 젠더 규범이 겪는 변화를 분석하고, 다기한 남성성/들의 계보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딸바보’가 인기를 끈 시기, 여성혐오 역시 폭발했다는 점을 연결시킴으로써 2000년대 한국의 젠더화된 사회를 분석할 것이다. 2010년대 대중문화 장에서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중심으로 떠오른다. 드라마 <내 딸 서영이>(KBS, 2012~2013)나 영화 <7번방의 선물>(2013) 등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다룬 대중서사물이 인기를 끌었으며,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주목하는 대중서사물이 늘어났다. ‘딸을 너무 사랑해서 딸 앞에서 바보가 되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신조어 ‘딸바보’는 자식을 엄하게 훈육하는 아버지라는 한국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 탈피하여 긍정적인 아버지 상으로 떠오

3) R.W.코넬, 『남성성/들』, 안상욱 외 옮김, 이매진, 2013, 111-136쪽.

르고 있다. '딸바보'는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하지 않은 이상적 남성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쓰이며, 근대적 남성성에 감성이 통합된 탈근대적 인간형으로 등장한다. 딸이 없는 젊은 남자배우나 어린 남자아이들에게도 '딸바보'라는 애칭이 자주 사용된다. 바야흐로 '딸바보'가 매력적인 남성의 자원이 된 셈이다. 이러한 '딸바보'의 젠더 수행은 남성성/들 사이의 차이를 밝히고 젠더 수행성이 갖는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는 틀이 될 것이다.

## 2. 한국형 아버지 상의 계보

한국 대중문화에서 아버지는 폭력을 이용해서 가족의 질서를 바로잡는 가부장이거나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자책하는 고독한 중년이라는 양극단으로 형상화되었다. 생계부양자로서의 가장이라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것이다. 아버지를 설명하는 데 다른 참조점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식민지 남성성과 초남성적 근대화가 만들어낸 표상이다. 권김현영은 피식민 국가의 남성 주체는 식민 이후 자국의 국민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경험을 여성화시키고, 당시 나라를 빼앗긴 전근대 남성들의 무능력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함으로써 구성된다고 지적한다. 이 분리과정에서 한국 남성 주체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목소리들 역시 삭제시킨다.<sup>4)</sup> 이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제외한 다른 남성성/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호전적 남성성은 공산당을 무찌르는 군인

4) 권김현영, 『민족주의 이념논쟁과 후기 식민 남성성』, 『문화과학』 49, 2007, 52쪽.

에서, 산업전사로 이어진다. 경제적 성장이 곧 반공이었던 1960~70년대를 거쳐 2000년대까지 휴전 중인 국가와 국민개병제는 시민을 ‘건강한’ 남성으로 한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남성들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을 남성성의 토대로 삼아왔다. 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궁극적으로 가족 내 남성의 부재로 이어진다.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산업전사이든 전쟁에 나간 군인이든, 남성은 재생산과 사적 영역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하는 말은 ‘밥줘’ 한 마디뿐이라는 농담이 있을 만큼, 한국사회에서 집안일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재현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러한 남성상에서 일탈하는 남성은 웃음 소재가 되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부장이 가사에 참여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미디어는 거의 없었다.

평균 시청률 59.6%, 최고 시청률 64.9%를 기록한 〈사랑이 뭐길래〉(1991~1992)는 가부장적 남성의 변화를 통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김수현식 홈드라마 특유의 대가족 제도를 형상화한 이 드라마는 ‘아들 가진 집’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딸 가진 집’의 ‘민주적인(자유로운)’ 분위기가 뒤섞이는 시대적 흐름을 읽어낸다.<sup>5)</sup> 보수적인 집이든 민주적인 집이든 상관없이 여성들은 헌신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며 시부모를 봉양한다. 민주적인 집안의 어머니 심에는 자신의 딸은 다르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딸에게 공부를 강조한다. 대학

5) 김수현의 가족 드라마는 보수적이지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현명한 아버지·할아버지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현모양처 어머니·맘머느리, 그리고 개성 있고 고집 세지만 웃어른에게 놀랍도록 예의바른 자녀들로 이루어진 모범적인 대가족을 그 모형으로 제시한다. 자녀 세대는 새로운 젠더 규범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자녀 세대를 포용하는 할아버지 세대를 통해 세대 간의 화합을 보여주는 서사로 인해 여성들은 김수현 드라마를 지지하고 4050 중장년 남성들은 김수현 드라마를 매우 싫어하는 극단적인 반응을 낳기도 하였다. 이영미, 『김수현 드라마의 리얼리티와 균형감』, 『황해문화』 79, 2013, 312-319쪽.

을 나오면, 가정 안에서 살림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을 그만두고 결혼한 자신에 대한 자조이기도 하다. 반면 보수적인 집안의 어머니 순자는 남편에게 “머슴살이”를 하면서 아들에게 집착하는 어머니가 된다.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상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딸에게는 오빠가 쓰는 침구를 정리하거나 오빠의 빨래를 시키는 등 철저하게 아들과 딸을 분리하는 것이다. <사랑이 뭐길래>는 이 두 가정의 아들과 딸이 결혼하면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라고 주장하던 보수적인 남성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보수적인 가부장이었던 이사장(이순재 역)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통해 거듭난다. <사랑이 뭐길래>의 마지막 장면은 그가 아픈 부인을 대신해 밥을 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좋은 가부장은 아내를 도울 줄 알아야 한다는 ‘진보적’ 상상력이 미디어에서 재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 공론장에서는 아버지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 남성들은 과거 가부장적 아버지나 생계부양자 모델을 탈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sup>6)</sup> 1995년 설립된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는 “가정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 위에 올바른 아버지상을 추구하며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에 아버지를 되돌려 보내자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좋은 아버지 되기 운동을 통해 가정의 권위를 회복시키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는 남성들 역시 체계 모니적 남성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001년 호주제 폐지 운동에 나섰던 ‘딸사랑아버지모임’은 경제활동만을 책임지는 권위적인 가부장의 역할을 강요해 온

6) 조윤경,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아버지 양육의 변화』, 『한국융합인문학』 2-1, 2014, 98-99쪽.

기업풍토와 사회분위기를 비판하면서 “육아와 가사를 아내와 평등하게 분담하고 아들과 딸의 양육을 차별하지 않으며 이러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표방한다.<sup>7)</sup> 이러한 움직임은 IMF를 전후로 강화된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IMF를 계기로 비기독교인으로까지 확장되었고 2004년부터는 기독교 색채를 배제한 열린아버지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sup>8)</sup>

IMF 이후 좋은 아버지 되기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사실은 생계부양자 모델의 실패라는 경제적 변동이 가정 내 아버지 역할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시켰음을 보여준다. IMF 이후 명예퇴직으로 인해 직장을 상실하거나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남성들은 가족 내 보살핌 노동의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는 『아버지』, 『가시고기』 류의 부성 멜로드라마 서사는 199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였다. 조창인의 『가시고기』는 혈액암에 걸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쓴 아버지가 결국 아들은 살리고 자신은 간암에 걸려 죽는다는 소설이다. 이혼 뒤 아들을 버리고 떠난 아내와 달리 아들을 보살핀 아버지는 자신이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아들을 어머니에게로 보낸다. 묵묵히 아들의 뒤를 지켜주는 아버지를 영웅화함으로써 평범한 아버지야말로 위대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김정현의 『아버지』가 일으켰던 아버지 신드롬을

7) ‘딸사랑아버지모임’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2001.6.22.,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참조.

[http://women21.or.kr/index.php?\\_filter=search&mid=statement&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94%B8%EC%82%AC%EB%9E%91&document\\_srl=282](http://women21.or.kr/index.php?_filter=search&mid=statement&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94%B8%EC%82%AC%EB%9E%91&document_srl=282)  
(최종검색일: 2016.11.12.)

8)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홈페이지 참조. [www.father.or.kr](http://www.father.or.kr)

이어갔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그 노고를 인정받지 못하다 암에 걸리는 아버지의 서사는 아버지의 경제권이 사라지는 IMF 시기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또한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가하는 아버지의 사례가 미디어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박세리는 IMF 직후인 1998년 US 여자오픈에서 극적으로 우승하면서 전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다. 그녀의 우승은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 덕택인 것으로 설명되었고, '골프 대디'인 그녀의 아버지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sup>9)</sup> 특히 골프는 장거리 운전이나 캐디 역할,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수행원이 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아버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박세리, 김미현의 아버지와 같은 한국형 골프 대디들은 딸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박세리의 아버지는 방송에서 딸의 연애사에 개입하였음을 자랑스럽게 밝힌 바 있다. 아버지가 훈육하면 더 훌륭한 선수를 만들 수 있다는 지론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가 자녀의 커리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들의 유행과 연결된다. 아버지와 친한 아이는 사고력, 논리력, 수학적 능력 등이 높아지고, 공적 영역에서 근대적 남성성을 획득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경우 더 '똑똑한' 아이가 된다는 방식으로도 이어진다.<sup>10)</sup>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공하는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접근이다.

9) 그런 아들 부녀가 <아빠를 부탁해>에 출연하여 보여준 장면은 이색적이다. 성공한 커리어를 가진 딸 박세리는 아버지의 식탐을 부끄러워하고, 아버지와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장성했다. 이는 강석우나 조재현의 딸들이 미성숙한 '어린이'의 위치에 있던 것과 비교할 때, 더욱 흥미롭다.

10) 조윤경, 『아버지 자녀 양육서』에 내재한 젠더 질서: '아버지됨'과 '근대적 남성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2-1, 2012, 48-52쪽.

이처럼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은 부권 상실 담론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물론 역사적으로 한국 공론장은 부권 상실의 위기를 과잉 재현해왔다. 부권 위기 담론은 초남성적 사회로 일컬어지는 1970년대에도 존재했다. 산업화 사회로의 변모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인 ‘효’가 약화되면서 아버지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때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은 강화된 모권과 페미니즘의 부상이다.<sup>11)</sup> 즉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아버지의 위기로 해석한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빠 힘내세요”를 가르치고 공연하는 동안,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균열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사이 대중매체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결함을 재현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성공을 거둔 가족 시트콤은 수직적 위계가 강한 가장의 권위를 희화화함으로써 웃음을 전달한다. 〈사랑이 뭐길래〉와 〈허준〉(1999~2000)을 통해 ‘묵직한 남성 지도자로 거듭난 이순재는 2000년대 중반, 가족 시트콤 시리즈인 〈거침없이 하이킥〉(2006~2007)(이하 〈거침없이〉)과 〈지붕뚫고 하이킥〉(2009~2010)(이하 〈지붕뚫고〉)에서 코믹한 가부장으로 등장한다. 〈거침없이〉의 이순재는 한의사이자 건물주로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의 지위는 위태롭다. 의학 실력으로는 며느리인 박해미에게 뒤지고, ‘이순재 여성전문 한방병원’이라는 타이틀도 ‘이&박 한방병원’으로 바뀐다. 게다가 큰아들 이준하는 직장도 없이 집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으며, 둘째아들 이민용은 이혼한 뒤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 얹혀 있다. 그런데 〈거침없이〉는 그런 가부장을 안쓰러워하거나 복권시키지 않는다. 도리어 수전노 ‘야동 순재’로 희화화한다. 가족들 몰래 야동을 보려다 들키고 고등학생인 손자의 친구와 먹을 것을 두고 다투는 70대 가부장의 모습은 가부장의 권위 자체가 허울뿐이라는 것을

11) 임인숙, 『한국 언론의 부권상실론의 변화와 정치성』, 『가족과 문화』 18-4, 2006, 73-76쪽.

보여준다. 따라서 이순재가 아무리 아내와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일삼더라도 관객들은 웃을 수밖에 없다. 이는 2000년대 초반 등장한 ‘간 큰 남자’ 시리즈가 가지고 있던 자기 연민이 제거된 버전이다.<sup>12)</sup> 루저 남성이 웃긴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고집하는 것이 루저가 되기 때문이다.

### 3. ‘아빠 예능’의 리얼리티와 ‘딸바보’라는 판타지

미디어에 나타나는 아버지 상의 변화는 리얼리티 예능과 만나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낸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재현되던 아버지들은 리얼리티 예능을 통해 보다 친숙하게 시청자 앞에 나타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생활을 노출하여 촬영이 이루어지고, 대본이나 각본 없이 진행되는 특성상 ‘현실 그 자체’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인들이 승자와 패자를 겨루는 미국식 리얼리티와 달리, 웃음을 유발하는 오락 프로그램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연예인이 등장하여 캐릭터를 창조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된다.<sup>13)</sup> ‘아빠 예능’은 이러한 한국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실제 아버지와 자녀의 행동, 기억 등이 매주 소재와 패턴을 달리하여 연결되어

12) ‘간 큰 남자’ 시리즈는 1990년대 후반 유행한 유머 시리즈로, “늦게 들어와서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 남자”, “아내에게 함께 외출하자고 하는 남자”, “오래 살아서 아내에게 수발하게 하는 남자” 여러 버전이 있다. 즉 여권의 상승과 부권 상실을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인데, 더 이상 아내에게 대접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자기 연민이 녹아 있어, 부권 상실의 과잉재현으로 읽을 수 있다.

13) 조준상·은혜정,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연구』, 『인문과학연구』 13-3, 2013, 559-561쪽.

시청자의 기억이 됨으로써 출연자의 캐릭터가 형성되고, 이것이 프로그램의 사실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처음에는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는 데도 서툴렀던 아버지들이 점차 육아에 능숙해지는 모습을 통해 양육자로서의 아버지를 ‘리얼리티’로서 받아들인다. 이는 프로그램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완성된다. 시청자는 출연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모방하면서 상호관계를 맺는다. 프로그램 시청 후 그 내용을 자신의 생각에 적용하거나 결합하여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이다.<sup>14)</sup> 이런 점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아빠 예능’은 한국사회의 아버지 상을 살펴보는 데 유효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 3-1. 부계 혈통의 강화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아빠 예능’의 출발을 알린 〈아빠 어디가?〉는 아내 없이 자녀와 단둘이 1박 2일을 보내는 아빠들의 좌충우돌을 통해 육아 프로그램의 전성기를 알렸다. ‘돈 버느라’ 자식과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었던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오지 탐험을 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보여줌으로써 가족 안 아버지의 자리를 모색한다는 기획의도를 보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 맺기가 프로그램의 핵심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아빠 예능’ 중 최장기간 방송되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KBS, 이하 〈슈퍼맨〉)도 마찬가지이다. 〈슈퍼맨〉은 “일만 하는 아빠들의 간헐적 육아 도전기이자 가족에서 소외되고 자녀에게 소홀했던 아빠들의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로 명명된다. 이를 위해 리얼리티에는 스토리텔링이 주어진다. 친구 같은 장난꾸러기 아버지, 다정한 아버지, 아들에게 ‘피곤하다’

14) 권상희·조은정, 『TV 프로그램 장르별 의사사회 상호작용 차원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3-2, 2009, 56-57쪽.

는 말을 달고 사는 가부장적 아버지, ‘딸바보’ 아버지 등 다양한 아버지 상을 통해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고, 아버지의 변화를 가시화한 것이다.

우선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은 어머니나 형제, 자매와는 단절된 채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 <아빠 어디가?>는 시골 오지를 찾아 촬영하는 탓에 밥하는 아버지, 씻기는 아버지, 자기 전 동화를 읽어주는 아버지 등 양육의 전 과정을 아버지가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서툰 아버지들은 아버지 되기의 과정을 체험한다. <아빠 어디가?>의 초창기에 출연자 성동일은 일찍 부모님과 헤어져 생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버지 되기’가 어떤 것인지 몰랐다고 고백한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드리는 사람이고, 자신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함께 출연하던 다른 아빠들과 달리 성동일은 아들과 친해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른 새벽 촬영을 준비하려고 일어난 7살 아들에게, 빨리 밥을 먹으라며 호통을 치던 모습은 방송이 거듭되면서 점차 변화한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묻고 서로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성동일의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생계 담당자 모델만으로는 아버지 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슈퍼맨>은 이러한 아버지 상의 변화를 포착한 프로그램이다. <슈퍼맨>의 파일럿 방송은 ‘오빠 아빠 되다’, ‘위기의 아빠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소재목을 통해 오빠에서 아빠가 되고, 그 아빠가 위기를 극복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슈퍼맨이 된다는 서사를 구성한다. 아버지가 되는 일련의 ‘되기’가 갖는 시행착오를 서사화하는 것이다. 파일럿 방송에서 추성훈은 딸의 낮잠 시간을 몰라 낭패를 겪었고, 이휘재는 아픈 아이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때 요리를 잘하거나 아이를 잘 돌보는 아버지들은 시청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나

이 과정은 엄마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귀결된다. 촬영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성별 분업의 자리는 여전하다. 그래서 2박3일간 아버지가 육아를 전담한다는 설정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강화되는 것은 양육자로서의 여성이다. 아버지들은 아내의 수고를 체험하며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것이 권장되는 사회가 되었지만, 주 양육자는 어머니여야 하는 것이다. 8시간의 고군분투 끝에 집으로 아내들이 돌아온다. 결국 이 ‘되기’의 과정은 ‘오빠에서 아빠가 되는 것’처럼 연상의 남성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하고,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슈퍼맨이 된다는 한국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전형화한다.

‘아빠 예능’은 리얼리티의 외피를 입고 남성의 양육 참여를 자연스럽게 재의미화하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구조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현된다.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가족 내 자리를 모색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부계 혈통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슈퍼맨>에서는 할아버지의 묘를 찾거나 직접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자주 등장한다. 이휘재나 추성훈의 아버지는 방송에 여러 차례 등장하여 부자 3대의 모습을 연출한다. 선원인 탓에 늘 집에 없었던 이휘재의 아버지는 늙고 병든 모습으로 등장하여 정서적 공감을 일으킨다. 늙은 아버지의 모습은 가부장의 노고를 대표재현한다. 2010년대의 아버지와 1970년대의 아버지를 비교하는 장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반복되는 에피소드이다. 과거 아버지들이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했고 아들들에게 엄격했던 반면, 지금의 자신들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출연자의 인터뷰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보여준다. 아버지 체험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고 아버지가 느꼈을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설정은 아버지 세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인정이자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딸바보'와 만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UFC 선수인 추성훈은 '딸바보' 이미지를 통해 성공적인 예능 커리어를 갖게 되었다. UFC 선수의 거친 남성성과 아빠로서의 다정함이 결합한 추성훈은 이상적인 남성으로 여겨진다. 방송 자막을 통해 구성되는 추성훈은 아내에게는 무뚝뚝한 '상남자'이지만, 딸에게는 바보스러울 만큼 다정다감한 캐릭터이다. '아빠'라는 한마디에 웃음 짓는 그의 모습은 어눌한 한국어와 함께 친근감을 높여준다. 추성훈의 아버지 추계이는 아들에게는 엄격했지만, 딸이나 손녀에게는 한없이 다정다감한 원조 '딸바보'로 묘사된다. 이들 3대는 손녀 사랑을 계기로 함께 여행을 가고 대화를 하는 등 친밀감을 증진시킨다. 어머니와는 통화를 자주 하지만, 아버지와는 하지 않았지만 딸이 태어난 이후 자주 연락하게 된다는 추성훈의 말처럼, 딸은 아버지들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강화된 유대는 추성훈의 경기 장면을 통해 강화된다. 경기에 출전한 아버지/남편/아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과 링 위의 난타전은 교차편집된다. 방송은 가족을 위해서 맨몸으로 링에 오르는 강인한 남성의 육체를 전면적으로 클로즈업함으로써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소환한다. 이는 "여전히 우리의 챔피언입니다"라는 자막을 통해 완성된다. 링 위에서 피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라는 서사를 완성한다. 경기의 승패에 관계없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라는 판타지가 완성되는 것이다.

### 3-2. ‘딸바보’를 통한 젠더 규범의 재생산

‘아빠 예능’이 가족의 보호자로서 가장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은 자녀의 성별화 방식으로도 드러난다. <아빠 어디가> 1시즌에는 한 명의 여자 아이에 4명의 남자 아이가 출연한다. 프로그램은 똑똑한 오빠인 김민국과 친구 같은 오빠 후, 잘생긴 오빠 준, 장난꾸러기 동생 준수 등 각 남자 아이들과 로맨스 관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이성애중심주의적 구도에서 송지아의 아빠인 축구선수 송종국은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지아와 친밀하게 어울리는 남자 아이들을 경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임에서도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다른 아이들을 넘어뜨리는 등 과잉보호를 계속한다. 주로 시골 오지에서 촬영된 <아빠 어디가>에서 지아는 “10분 이상 땅을 밟지 않는다”고 할 만큼, 시종일관 아빠에게 안겨 있다. 때로 이 ‘사랑’은 매우 맹목적인 독점 관계로 이어진다. 부인과 아들은 뒷전이고 딸에게만 애정을 쏟는 것이다. 이는 딸에 대한 애정을 통해 “남자의 인생이 가장 빛난다”는 서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프로그램에서 송종국의 잘못은 ‘딸바보’인 탓으로 이어진다. 아들은 넘어지거나 다쳐도 되지만 딸에게는 보호가 필요하고, ‘딸을 사랑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식의 알리바이가 통용되는 것이다.

딸에 대한 과잉보호는 딸을 여성으로 성별화하는 것 때문이다. <아빠 어디가> 시즌 1에서 아들과 함께 출연한 성동일은 ‘장남’인 7살 아들에게 자신이 없으면 어머니와 여동생은 모두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반복한다. 남성에게는 나이에 상관없이 보호자로서의 과업이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 시즌 2에 함께 출연한 5살 딸에게는 “여자답게 굴어라.”,

15) 『남자가 사랑할 때』, 『텐아시아』, 2013.5.10.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132790>

“조신하게 앉아라.”, “여자에게 그게 뭐냐”는 말을 반복한다. 프로그램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딸바보’로 포장하면서 씩씩한 어린아이에게 ‘여성’의 젠더를 부여한다. 게다가 아이 역시 아버지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성동일이 아내와 처음 만난 식당에 딸을 데려가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내가 앉았던 자리에 딸을 앉히고 아내와 먹었던 음식을 먹고 아내와 나눈 대화를 복기하는 아버지는 딸을 보며 아내를 떠올린다. 이 장면은 성동일이 딸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눈 날로 기록되며 감동적으로 채색된다. 그러나 여기서 딸은 아내를 대신하여 성애화된다.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딸바보’가 유통되는 방식이다.

딸은 인간이기 이전에 ‘여자’로 정체화되고, 아버지의 보호와 통제 아래 놓인다.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SBS에서 방영한 <아빠를 부탁해>(2015)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코미디언 들과 그들의 20대 딸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담는다는 의도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딸 바보 아버지들을 위한 리얼 부녀 버라이어티”를 표방한 <아빠를 부탁해>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딸”에게 “가장이 아닌 집안의 가구로 전략한 아버지”를 부탁한다. 이 방송에서 아버지와 딸은 ‘데이트’를 반복하며 소통을 시작한다. 그러나 정작 중심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구미에 맞추는 딸의 모습이다. 딸과 아버지의 관계는 5살 딸을 향해 “여자답게 굴어라”, “조신하게 앉아라”라고 말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다. 최초의 ‘딸바보’ 개그맨 이경규는 딸의 음주량과 남자친구 여부를 알아내려 하고, 무뚝뚝한 아버지를 대표하는 배우 조재현의 20대 딸은 10살 소녀의 말투로 ‘애교 있는 딸’을 연기한다. 성인여성의 연애, 음주 등을 통제하는 것은 ‘딸’을 영원히 미성년의 자리에 두려는 욕망이며,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아버지들의 욕망을 ‘딸바보’다운 사랑으로 포장한다.

송제숙은 한국사회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코드화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미성년으로 취급된다고 지적한다.<sup>16)</sup> 여성은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혼 후에는 남편의 아래로 들어간다.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에서 ‘딸바보’를 부모의 ‘사랑’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여성의 유아화에 다름 아니다. 여성은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딸바보’, ‘사랑꾼’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즉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비주체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다.

〈아빠를 부탁해〉에서 아버지들의 강력한 지배가 가능한 것은 이들이 실패하지 않은 가장이기 때문이다. 초기 이 프로그램은 성공한 남자 연예인들의 집과 아내 등 사생활을 관음증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들의 경제력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출연자인 딸들의 상당수가 텔런트나 PD 등 방송 관계 직종을 희망하는 20대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계급이동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딸의 미래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를 갖는 것 자체가 하나의 ‘스펙’이 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기업은 신규채용을 감축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청년 세대의 경제적 독립이 불투명해지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아버지가 성인인 딸의 섹슈얼리티나 자율권을 통제하는 것은 아버지가 제공하는 경제적 안정과 미래에 양도된다. 이로 인해 ‘딸바보’ 아버지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TV 리얼리티쇼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딸에게 최상의 경제적 환경을 제공한다. 미디어는 아버지는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가족 내 구성원을 통제할 자격이 있다는 논리를 반복해서 재현한다. 다시금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구도가 재편

16) 송제숙, 『혼자 살아가기』, 황성원 옮김, 동녘, 2016, 1장 참조.

되고, 이를 ‘딸바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아빠 예능’에서 시청자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리얼리티’에 열광하였다. 〈아빠 어디가〉의 방영 이후, 전국에는 캠핑 열풍이 불었고 등산용품 판매업체들이 호황을 맞았다.<sup>17)</sup> 가족이 함께 캠핑을 가서 아버지가 요리하는 풍경의 광고가 방영되었고 어린이용 등산복까지 등장하였다. 아버지라면 모름지기 자녀와 함께 1박 2일 야외 캠핑을 하거나 교외로 나가야 하는 것으로 규범화된 것이다. 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일종의 의사사회로 기능하여 롤모델로 작동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빠 예능’에 나오는 것처럼 언제든 1박 2일 캠핑을 떠날 수 있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텐트, 야외용 테이블, 등산복 등 일련의 물품을 구비해야만 한다. 매주 아이를 데리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데에도 자본이 필요하다. PPL임에 분명한 여행과 체험 프로그램은 미디어와 기업이 손잡고 만들어낸 판타지이다. ‘진짜 아빠’는 자녀에게 저런 체험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자 실버만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우리의 ‘현실’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한다. 남성성은 일종의 ‘지배적 허구(dominant fiction)’로 작동하며, 남성주체가 믿고 따라야 할 판타지가 된다.<sup>18)</sup> ‘아빠 예능’이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지배적 허구이다.

‘아빠 예능’의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결국 남성 가장의 경제력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사

17) 『한겨레』는 4월1일부터 16일까지 롯데마트의 캠핑용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늘었다. 텐트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팔렸고, 코펠이 76.8%, 침낭이 69.8% 늘었다고 보도한다. 같은 기간 이마트 역시 캠핑용품 판매가 378.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아빠 어디가? 응 캠핑 가』, 『한겨레』, 2013.4.18.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583524.html>

18) Kaja Silverman, *Male Subjectivity at the Margins*, Psychology Press, 1992, pp.15-51.

회 경제적 계층 소속감이 중상위에 속한다고 스스로 평가한 개인이 가족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을 시청할 경우 자신의 삶과 현실 유사성을 느끼면서,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빠 예능’의 긍정성은 중상위 계층소속감을 가진 개인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결론이다.<sup>19)</sup> 남성성의 위기를 분석한 맥키네스(MacInnes)는 남성성의 위기를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젊고 능력 있는 남성들에게만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상대적으로 늙고 저소득층, 저학력인 남성의 경우 남성성의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경제적 특권층이나 고학력의 남성들은 다양한 남성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가진다는 것이다.<sup>20)</sup> 문제는 ‘아빠 예능’이나 ‘딸바보’ 담론이 한국사회의 경제 위기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성의 위기가 곧 경제 위기인 한국 상황에서 남성성의 위기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탐색되고 있느냐는 질문이다.

#### 4. 여성혐오의 다른 얼굴인 ‘딸바보’<sup>21)</sup>

‘딸바보’의 정치경제적 배경이 되었던 청년 실업의 장기화와 생계 부양자 모델의 실패는 남성성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 백래시(backlash)로서 여성혐오를 추동하였다. 남성성의 규범이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발생시키는 문화 지체가 혐오로 이어진 것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된 ‘된장녀’, ‘김치녀’ 등의 혐오발화나 영화나 광고, 가사 등

19) 변상호·유연주, 「가족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 시청과 사회 경제적 계층소속감의 상호 작용이 가족건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젠더&문화』 31-1, 2016, 58-59쪽.

20) MacInnes, *The End of Masculinity*, Open University, 1998.

21) 이 장은 허윤, 「승배에서 혐오를 넘어, 지금 이 자리에서」, 『문학선』 2016 가을호, 140-147쪽을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여성혐오는 매일같이 미디어를 장식한다. 그런데 여성혐오 논란이 일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나는 아내(여자친구)를 사랑한다”, “어머니를 존경한다”, “딸바보 아빠이다” 등 자기 주변의 여성들과의 관계를 일종의 알리바이로 사용하는 것이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여성들을 혐오하는 남성들이 공존하는 사회, 그것이 한국사회인 맨 얼굴이다. 이러한 수사로 인해 일견 가족화된 여성은 여성혐오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족화된 여성들은 가족 내 성/폭력에 시달린다. 이처럼 성화된 존재로서의 여성을 보여주는 것이 ‘남초’를 둘러싼 우려들이다.

성비 격차가 심각해지자 비혼 여성은 당장 비난의 대상이 된다. 언론은 “비혼이 대세?... 신붓감 없어 결혼 못하는 농촌 총각엔 ‘비수’, 외국 처녀러야 ‘총각 딱지’ 떼는 현실”이라며 농촌의 국제결혼 지원 제도와 도시 여성의 비혼주의를 대조시키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국내에서 신부를 구하지 못해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는 농촌 총각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도한다.<sup>22)</sup>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비혼 도시여성의 선택을 ‘트렌드’로 명명, 비난한다. 주체는 어디까지나 ‘안타까운 농촌 총각’이며, ‘외국 처녀’는 ‘총각 딱지’를 떼기 위해 대상화된다. 인종 간 결혼을 부정적 대타항으로 놓는 화법에서 한국 여성들은 ‘김치녀’로 인종화되고, 외국인은 젠더화되는 것이다.

성별화된 사회가 이야기하는 문제 중 유독 남성의 결혼만이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남성 중심의 부계혈통이 인구 확장의 유일한 상상력이

22) 『“비혼이 대세?... 신붓감 없어 결혼 못하는 농촌 총각엔 ‘비수’, 외국 처녀러야 ‘총각 딱지’ 떼는 현실』, 『연합뉴스』, 2016.4.27. 현재는 “비혼이 대세라니, 결혼이 어려운 농촌총각에게는 ‘상처’라는 제목으로 수정되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6/0200000000AKR20160426191851064.HTML?input=1195m> (최종검색일: 2016.11.23.)

기 때문이다. 남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사회-국가는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불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초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연간 3만 건에 달하였다는 여아 낙태이다. 즉 남성 중심적 가족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저출산이 국가적 과업이 되는 현재까지도 계속된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는 난임 치료, 세 자녀 출산 인센티브, 남성 육아 휴직 수당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모두 '정상 가족을 위한 것이다. 가족을 이루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족, 혹은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즉 결혼과 출산을 직결시키는 상상력이다. 이러한 사고의 결과,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지목될 수밖에 없다.

시사인은 온라인 여성혐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성혐오의 출발점에 연애와 결혼이 있다고 말한다. 남초의 심화로 인해 연애와 결혼이 힘들어지고, 사랑이 지배해야 할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 '꽃뱀'과 '떡튀녀'를 경유해 "반칙을 하는 여자"라는 내포를 가진 '김치녀'가 부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여성혐오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노"가 된다.<sup>23)</sup> 나의 아내나 연인은 '김치녀'와 다른 '개념녀'이지만, 그 '사랑'이 좌절되면 쉽사리 '김치녀'가 될 수 있다. 내 아내와 연인에 대한 숭배는 좌절을 경유하여 혐오의 정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여성은 스스로 대상화된 위치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 '팔바보'와 여성혐오가 동시에 공론장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청년 남성들의 여성혐오는 '여성은 보호되어야 할 존재'에서부터 출발

23) 『여자를 혐오한 남성들의 '탄생』, 『시사인』 418호, 2015.9.17.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dxno=24291> (최종검색일: 2016.11.23.)

한다.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졌다는 남성들은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의 규범, 성평등 교육을 받고 '남자가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던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이 여성들의 '미러링'(패러디)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한다.<sup>24)</sup> '우리는 경제력이 있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따라서 폭압적으로 가족을 지배할 수 있었던 가부장이 아니다'로 요약되는 이 목소리는 여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불안을 호소한다. 여성이 '딸'의 위치에서 벗어나 주체화하는 것을 공격으로 코드화하는 것이다. 온라인상의 여성혐오를 연구하는 윤보라는 사적 존재였던 여성이 촛불집회를 통해 정치 영역의 주체로 부상한 이래, 여성의 주체성을 삭제하려는 작업들이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여성의 '특권'으로 왜곡하는 해석들이 넘쳐난다고 지적한다.<sup>25)</sup> 즉 여성혐오는 여성의 주체성을 특권으로 치부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지속적으로 행위성이 없는, 미성숙한 주체의 자리로 소환된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취약성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역차별'론은 성평등지수 0.651(전체 145개국 중 115위)이라는 객관적인 통계로도 설득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굴하지 않는다. '여성의전화'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91건, 살인미수도 95건에 달한다.<sup>26)</sup>

24) 정의당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한국사회의 남성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서술한다. 문제는 이 자기혐오를 바탕으로 어떠한 남성성을 구성할 것인가, 무엇을 적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썬썬이, 『남자청년들의 삶은 철저히 피폐해지고 망가졌습니다』, 정의당 당원 게시판, 2016.7.23.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68692&page=1&keyword=id&keyword=sxcv22003](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68692&page=1&keyword=id&keyword=sxcv22003) (최종검색일:2016.11.23.)

25) 윤보라, 『김치녀와 벌거벗은 임금님들』,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연구, 2015, 33-40쪽.

그러나 폭력이 발생한 후에도 여성들은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한국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여성 피해자를 '무고하고 순결한 소녀' 이미지로 가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은 주체적인 '성인'이 될 때, 혐오의 대상이 될 위험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성인인 여성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히고, 애교를 요청하는 것으로도 나타나다. 아이의 말투나 몸짓을 여성다움으로 코드화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여성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해계모니적 남성성을 바탕으로 한 남성연대로 구성된 사회이다. 한국사회에서 남성성은 군사적인 지식을 많이 알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여자를 잘 아는 것을 통해 증명된다. 병역의무는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경력으로 사용되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친다.<sup>26)</sup> 이러한 구도에서 여성은 남성성을 증명할 대상으로 소환되거나 영원한 2등 시민이 되었다. 남성 가부장 중심의 한국 사회의 구조는 국가 시스템의 실패를 가리는 판타지로 작동한다. 복지 시스템, 양성평등 정책, 범죄예방 및 처벌 등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것들을 아버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는 '가족을 보호하는 아버지'의 자리를 재생산한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거나 돈을 벌기 위해 중동으로 떠났을 때에도 '가족을 보호하는 자'로 의미화되었다. 산업화와 근대화가 국가 통치성을 구성하던 1970년대까지 아버지는 부재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였던 셈이다. 파병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가족을 위한 것'이 되고, 우호관계의 강화라는 정치적 이득은 '국가를 위

26) 「작년 남편 애인에게 피살된 여성이 91명, 나홀로 한 명꼴」, 『연합뉴스』 2016.3.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8/0200000000AKR20160308173400005.HTML?input=1195m> (최종검색일: 2016.11.23.)

27) 권김현영,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105-125쪽.

한 것'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딸들'은 군인들의 위안부로, 공장의 여공으로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딸을 보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서의 아버지를 강조함으로써 국가는 시민을 정치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 5. '보호하는 아버지'라는 헤게모니

2015년 초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다. 그래서 IS가 좋다”며 IS로 간 소년과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IS보다 위험하다’는 칼럼리스트 김태훈의 발언은 여성혐오가 임계점을 넘어 수면 위로 올라왔음을 알렸다. ‘김여사’, ‘된장녀’, ‘김치녀’와 더불어 여성혐오가 한국사회에서 이미 ‘일상’임을 보여준 것이다. 여성혐오를 커밍아웃한 공론장 덕택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각종 인터넷 공간에는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했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에서부터 메갈리아까지,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일련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때 한국의 남성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등장한 용어로 ‘갓양남’이 있다. ‘젠트맨’의 매너를 가진 서양 남성을 지칭하는 ‘갓양남’은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퍼지면서 여성을 보호할 줄 아는 남성성으로 찬양되었다. 이는 여성혐오론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하는 ‘여동생, 아내, 어머니’론과도 연결된다. 당신의 아내나 어머니, 여동생이 될 수 있으니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논리다.<sup>28)</sup> 이처럼 ‘딸바보’를 이상적인 남성성으로 여기는 공론장

28) 고예린, 「〈말하는대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거리의 어려움」, 『ize』, 2016.10.13.

<http://ize.co.kr/articleView.html?no=2016100920077260282>

최근 방영을 시작한 JTBC의 예능 〈말하는대로〉는 버스킹 형식을 토크쇼에 도입하여, 여러 연사들을 길거리로 등장시키고, 지나던 사람들을 관객으로 초대한다. 2016년 9

의 분위기 역시 ‘갓양남’ 논의와 연결된다.

그러나 2010년대 한국의 미디어가 재생산하고 있는 ‘딸바보’ 담론은 여성을 남성 가부장의 통제하에 두는 방식의 여성혐오와 결을 같이 한다.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여성혐오의 알리바이처럼 유통되고 있지만, 여성은 남성이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에만 ‘좋아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약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어린 딸’은 아버지의 서사를 완성하는 데 사용된다. 남성성의 위기를 남성성에 대한 재질문이나 재정의, 성차의 정치경제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아버지의 위상 강화’로 대답하는 방식의 반복인 것이다. ‘아빠 예능’ 속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양육자로서 등장한다. 자녀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딸과의 ‘데이트’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낼 줄 아는 세련된 남성성이다. 보호하는 남성성이 ‘딸바보’의 외피를 입고, 부드럽게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딸바보’를 자처하는 아버지는 오히려 더 강력한 가부장이 된다. 국가의 부재를 보상할 개인의 성공 신화가 무너진 지금, 다시금 보호자로서의 아버지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 질서를 재생산함으로써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완성한다. ‘아빠 예능’은 딸을 성별화하고 딸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아버지들에게 ‘딸바보’라는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사 안에서 여성은 결혼해서 다른 남성의 ‘아내’가 되기 전까지 미성숙한 주체의 자리에 놓인다. 아버지가 남편에게 여성을 넘겨주는 ‘교환’의 형식이 반복되는 것이다.<sup>29)</sup> 그렇기에 2010년대 미디어에서 벌어지는 ‘딸바보’ 신드

월 28일 방송된 2회 방영분에서 작가 손아람은 “남성들이 연애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문제를 논의하였다. 젠더 불평등이 ‘내 아내’나 ‘내 여자친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남성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고 예린이 지적했듯 여성을 남성의 연인으로 환원하는 이성애중심적 구도이기에 사실상 기존의 ‘팬박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장이다.

름은 남성성의 위기를 재질문하지 못한 채 손쉽게 우회로를 찾은 여성 혐오의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

- 
- 29) 게일 루빈은 레비스트로스와 프로이트에 대한 재독해를 통해 여성을 원자재로 간주하고 가내노예화된 여성으로 가공하는 체계적인 사회적 장치를 파악한다. 가부장적 이성애가 남성과 남성의 유대를 공고히 하려는 일차적 목적을 위해 여성을 교환 가능한 상징적 재산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교환을 바탕으로 한 친족 체계의 구조화는 정치경제와 섹스/젠더 체계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일 루빈, 『일탈』, 신혜수 외 역, 현실문화, 2015, 91-147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MBC <아빠, 어디가?>(2013~2015)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2013~현재)

SBS <아빠를 부탁해>(2015)

### 2. 논문과 단행본

고예린, 『〈말하는대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거리의 어려움』, 『ize』, 2016.10.13.

권김현영, 『민족주의 이념논쟁과 후기 식민 남성성』, 『문화과학』 49, 2007, 39-54쪽.

\_\_\_\_\_,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권상희·조은정, 『TV 프로그램 장르별 의사사회 상호작용 차원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3-2, 2009, 51-93쪽.

권인숙,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병역의무』, 『한국여성학』 21-2, 2005, 223-253쪽.

송제숙, 『혼자 살아가기』, 황성원 옮김, 동녘, 2016.

여성가족부,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6.

\_\_\_\_\_,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 측정』, 2015.

윤보라 외,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연구, 2015.

윤빛나, 『아빠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남성성과 젠더 담론: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수용자 해석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5.

이영미, 『김수현 드라마의 리얼리티와 균형감』, 『황해문화』 79, 2013, 312-319쪽.

조윤경, 『‘아버지 자녀 양육서’에 내재한 젠더 질서: ‘아버지됨’과 ‘근대적 남성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2-1, 2012, 35-72쪽.

\_\_\_\_\_,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아버지 양육의 변화』, 『한국융합인문학』 2-1, 2014, 83-112쪽.

조준상·은혜정,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연구』, 『언론과학연구』 13-3, 2013, 556-590쪽.

최성민, 『대중 매체 텍스트의 리얼리티 문제 연구』, 『인문콘텐츠』 18, 2010, 125-146쪽.

한경혜, 『아버지상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7.

R.W.코넬, 『남성성/들』, 안상욱 외 옮김, 이매진, 2013.

『남자가 사랑할 때』, 『텐아시아』, 2013.5.10.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탄생』, 『시사인』 418호, 2015.9.17.

『총각 6명 중 1명, 짝이 없다… 올해 최악의 '男超』, 『조선일보』 2016.4.22.

『'비혼이 대세'?… 신붓감 없어 결혼 못하는 농촌 총각엔 '비수', 외국 처녀라야 '총각  
딱지' 떼는 현실』, 『연합뉴스』, 2016.4.27.

Kaja Silverman, *Male Subjectivity at the Margins*, Psychology Press, 1992.

MacInnes, *The End of Masculinity*, Open University, 1998.

## Abstract

Misogyny in the Era of 'Daughter-Fools'  
- Korea's Masculinity in the 2000s seen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Father Figure'

Heo, Yoon(Ewha Woman's University)

The biggest change seen in Korea's popular culture in the 2010s is the increased exposure of fathers on TV. Variety shows increasingly introduced sub-programs featuring fathers and their children, and invited celebrity parents and their kids to appear on studio and reality shows. In particular, reality shows on celebrity parents raising their children were dubbed 'child-raising variety show' and gained immense popularity. Among public channels alone, MBC's *Dad, Where Are You Going?* (2013-2015), KBS' *The Return of Superman*(2013-present) were and are broadcasted under this category, these programs focus on feat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 and their children.

'Daughter-fools' infiltrated the public sphere starting from 2009. KBS' evening wide show *Live Tong* chose 'daughter-fool' as the buzzword of 2010 on its broadcast on 29 December 2010 and announced the arrival of the new father figure. Casting off the hegemonic masculinity represented by strict fathers, 'daughter-fool' is the most positive image of masculinity to be recreated in Korean media since 2000. The expression is used by men to present themselves the ideal type of masculinity that does not shy away from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appear in Korean society as a post-modern figure that integrates modern masculinity and feminist sentimentality.

However, Fathers experience for a limited time the difficulties mothers face on a daily basis while waiting impatiently for their wives to come back. Although the present society encourages fathers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the mother's position is immutable. And the way 'daddy shows' reinforce the image of men as the protector and head of the family can also be found in the way the children are gendered. The over-protectiveness over daughters comes from gendering daughters as women. The daughter is identified as a 'woman' before as a human-being, and it is the same with

daughters who have become adults. Before marriage, women are trapped under their father's umbrella, and after marriage, they move under that of their husbands.

At the bottom of this coexistence of 'daughter-fools' and misogyny in Korean society is male solidarity. Korean society is founded upon male solidarity based on the hegemonic masculinity.

(Key Words: *'daughter-fools'*, *hegemonic masculinity*, *mysogyny*, *The Return of Superman*)

논문투고일 : 2016년 10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1월 2일

수정완료일 : 2016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15일